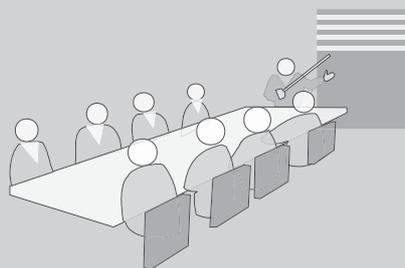


WORKSHOP

2006년도 제7차 학교통일교육발전재단 워크숍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 2006년 12월 8일(금)
12:00 ~ 19:30

▶장소 : 경북교육연수원(구미)

주최: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관: 경상북도 교육청





진행순서

- ◇ 12:00~13:00 등록

- ◇ 13:00~13:20 개회식
 - ▶ 국민의례
 - ▶ 인사말씀(조병인 경북교육감)

- ◇ 13:20~14:10 특강
 - ▶ (김홍재 통일교육원장)

- ◇ 14:10~14:20 휴식

- ◇ 14:20~15:3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회: 강석승(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장)
 - ▶ 주제발표: 오기성(경인교육대 교수)
 - ▶ 토론: 심근석(장산중학교 교사)
류연하(죽변중학교 교사)

- ◇ 15:30~15:40 휴식

- ◇ 15:40~16:00 통일교육 영상자료 상영
 - ▶ “한반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 16:00~16:30 새터민과의 대화 (사회: 강석승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장)
 - ▶ 황은주(31): 함북 은성 출생

- ◇ 16:30~19:30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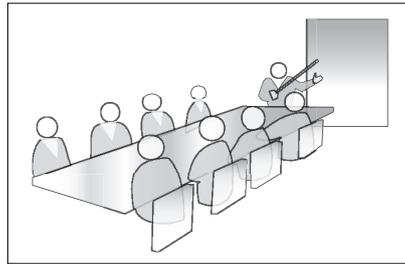
■ 주제발표

-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오 기 성(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7

■ 지정토론

- 토론문 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모색)
심 근 석 (장산중학교 교사) ----- 39
- 토론문 II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글)
류 연 하 (죽변중학교 교사) ----- 67





주제 발표문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오기성/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오기성

I. 서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처럼 세대를 초월하여 잘 알려진 노래는 애국가를 제외하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과장된 말일까? 대답은 긍정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통일을 민족의 지상과제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성취해야 할 목표라고 배워왔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바다를 찾아다니며, 마우스와 자판만으로 게임을 즐기는 흔히 N세대들에게도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요 민족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실의 아이들, 내가 학교의 책임자로서 지도하고 있는 N세대들, 그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차가운 머리로 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통일을 소망하고 있을까? 서너명 정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니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보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통일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들은 어떨까? 진실로 민족의 지상과제라고 느끼고 뜨거운 열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은 구성되어 있을까? 통일이 되어야 함을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교사는 얼마나 될까? 통일을 위해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가 필요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통일관련 수업에서 교사들은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을 바라보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선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7차 교육과정과 학교 통일교육

제7차 교육과정은 통일 교육 시수와 관련 내용에 있어서 제6차 교육과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도덕과의 경우를 보면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앞에서 처럼 7차 교육과정의 도덕과 경우에는 6차 교육과정보다 내용이 30%정도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도덕과는 이전의 내용의 범위와 계열성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통일 교육의 내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학교 도덕과를 예로 볼 경우,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도덕과에서의 통일교육 내용은 이전에 비하여 대폭 축소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중학교 3학년에서의 수업 시수가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된 영향도 있지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선택 과목의 위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6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다루어지는 내용의 폭과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년제 개념의 도입에 따라서 중·고등학교(8-10학년)의 도덕을 1학년에 2개 영역씩 학습하도록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이 2학년에서만 다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놓고 보면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하여 통일교육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표 1> 6, 7차 도덕과 통일 교육 연간 시수 비교

구분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바른생활 도덕과목 시수	6차 교육과정	60	68	34	34	34	34	68	68	68	34	34	34
	7차 교육과정	60	68	34	34	34	34	68	68	34	34	(심화과정)	
통일교육 내용의 시수	6차 교육과정	10	15	8	8	8	8	12	12	12	0	0	20
	7차 교육과정	10	15	8	8	8	8	0	12	0	17		

〈표 2〉 6, 7차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학교급	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바른 생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애국가에 대한 바른 자세 가지기 •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 바르게 달기 •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에 긍지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 해외 동포들의 생활에 관심 가지기 •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궁화 사랑하기 •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 알기 •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극복의 의지를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사랑하기 •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알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기 •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문화 유산 애호 •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 평화 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 가지기 • 다가올 통일에 대비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중학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민족의 의미 파악 •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 • 국가,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 	(없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분단의 현실과 통일 과제 • 통일의 필요성 • 북한의 정치, 경제, 언어, 문화현실 • 남북한의 통일정책 • 민족통일의 당면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공동체 번영과 통일국가의 실현방안, 민족 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며,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길 	(없음)	
고등학교	전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 통일 과업의 달성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무엇보다도 이전의 통일교육과 비교해 볼 때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실상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시켰다.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실상에 관한 내용이 너무 동태적인 특성이 많아 교과서에서 다루기도 힘들고, 또한 사실적 정보를 중요시 여기는 다른 교과를 통해서도 가능한 내용이라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제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삶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이해 부분을 축소 내지 제외시키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을 보면, 기존의 체제중심의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원인과 과정은 여전히 과거 중심적 기술로 인해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 의문이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부분에서 통일정책 비교가 단골 메뉴로 제시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보다는 북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청소년들의 생활과 의식구조 등을 다루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의 관심도와 근접함으로써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진정한 통일 준비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계열성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8학년과 10학년의 도덕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의미, 통일의 당위성, 다른 나라의 통일 과정,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8학년에서 배운 후에, 10학년에서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통일 문제는 분단 현실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이 통일 실현 의지에 후속되는 논리적 잘못을 범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질 수 있으므로 10년간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상으로는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모두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다. 교과상으로는 국어, 도덕, 사회, 국사 등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재량활동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또한 특별

활동에서도 각종 자치활동, 동호활동, 수련활동, 행사활동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공식적으로 도덕과에서 주로 행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는 초등학교 3~6학년 주당 1시간, 중학교 1~2학년 2시간, 3학년 1시간, 고등학교 1시간 등으로 배정되어 있어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주당 수업 시간 수에서는 감소되었다. 주당 1시간으로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보충하는 방안으로는 모든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다루도록 하며, 특히 국어, 사회 등의 과목에서는 통일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이들 교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사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범교과화를 대비한 교과별 통일교육은 교육연수원에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2. 통일의식조사의 허와 실

최근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한 『통일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결과를 보면¹⁾,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응답이 37.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0.8%,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32.6%를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취약한 편이며,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경제난 속에 허덕이는 실패한 체제라는 인식이 깔려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 50.4%, 인터넷이 16.7%, 교과서 및 기타 서적이 12.8%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종전의 조사 결과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통일에 대해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4.5%로 나타났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다. ‘통일이 안된 것은 어느 나라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대

1) 통일교육원, 『통일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2004)

해 미국이 53.0%, 북한이 14.7%, 남북한 모두가 12.3%, 일본이 7.2%라는 응답을 보였다. ‘기회가 된다면,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9.5%가 있다는 응답을, 18.5%는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통일 후 북한에 거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69.6%, 있다는 응답이 30.4%를 보였다. ‘북한 동포 돕기 모금활동이 있다면 용돈을 모아 기부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43.0%,, 있다는 응답이 33.6%를 보였다.

‘통일 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떨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5.1%를 보였고, ‘통일 후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8.5%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 후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가 38.9%, 이념적 차이 26.4%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서로 상충된 측면을 보여준다. 즉,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과 북한에 거주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과 북한 동포 돕기 모금활동이 있다면 용돈을 모아 기부할 용의가 없다는 응답, 통일 후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과 통일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은 일견 모순된 답변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학습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약화이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실효성 문제이다. 또한 북한을 실패한 체제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체제에 대한 우월감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을 열등한 체제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3.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그동안 우리는 6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해 왔다. 물론 우리의 통일교육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비교적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반공교육에서 승공 또는 멸공교육이 강조되었던 때가 있었고, 안보교육이 강화된 때도 있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통일 관련 교육은 통일안보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변화되었고, 1990년대 들어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이 자리잡게 된다.

1990년대는 남북한이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상호 불신감의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과제전환과 상호접근이 필요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통일안보교육의 무게 중심이 통일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울러 반세기 가까운 분단체제하에서 길들여진 의식과 생활문화상의 이질적 양상이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의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 동질화 과정에서 나타날 상황에 대비하는 교육도 중요함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통일교육에 있어 나타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그리 만족스런 상태가 아니다. 예컨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조사는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 특히 청소년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2002년도 실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식조사에 따르면²⁾, 청소년들은 북한문제 및 통일문제에 대해 막연한 수준에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낮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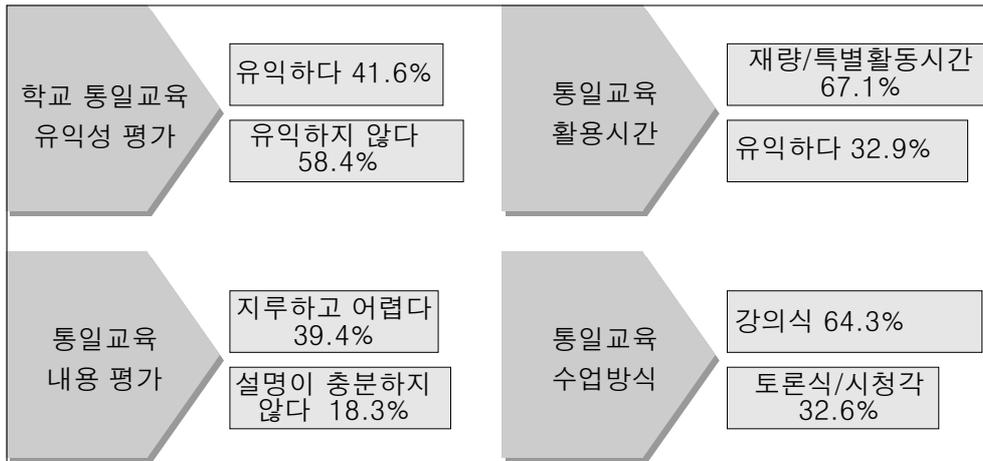
통일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므로, 공식 교육기관인 학교의 역할이 더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현재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다음 (그림1)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학교 통일교육 전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원인은 정형화된 수업방식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수업기자재 활용의 미비, 수업시간에 국한된 형식적 교육 등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습에서 흥미나 학습동기 유발에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교육의 교육적 성과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북한이나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얻는 원천은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으로부터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교육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2002. 6)

(그림 1) 학교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한 반응



보다는 언론을 통해 얻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를 언론, 그 중에서도 TV를 통해 얻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의뢰하여 방송문화연구소가 조사한 통일에 대한 『통일에 대한 청소년 의식 조사』결과를 보면³⁾,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 알게되느냐는 질문에 텔레비전이 50.4%, 인터넷이 16.7%, 교과서 및 기타 서적이 12.8%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약80% 정도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12% 정도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나머지 8% 정도는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얻는다는 응답을 보였다. 결국 이러한 조사 결과는 통일교육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⁴⁾

4. 교육관리자 및 교사들의 통일의식 미흡

학교 통일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통일교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제도적 측면에서의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생각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의식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와 2001년 7~8월 사이 통일교육원에

3)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에 대한 청소년 의식 조사 (2004).

4) 이와 관련해서는 황미나,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모색”, 제5차 통일교육발전워크숍 자료집 (2002)참조

서 통일교육 전문연수를 받은 전국 도덕·사회과 교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를⁵⁾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을 모범적으로 행해야 하는 통일교육 시범학교인 부산 모여중이 2000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⁶⁾, 교사들은 통일교육을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학생들은 41%만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59%의 학생들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전국적으로 시행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2000년 전국적으로 행해진 한 조사의⁷⁾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설문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학생은 위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41.1%였으며, 교사들은 39.1%의 학생만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보일 뿐이라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일교육원의 교육대상이었던 전국 도덕·사회과 교사들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생들의 통일교육 관심도가 불과 10.5%, 보통 23%,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66.5%로 나타나 학교통일교육의 위기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단위:%)

구 분	매우 관심있다	비교적 관심있다	보통이다	별로 관심없다	전혀 관심없다	전체
전 교과 교사	7.7	31.4	36.8	23.5	0.7	100.0
도덕·사회과 교사	0	10.5	23.0	61.2	5.3	100.0

* 자료: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통일연구원, 2000), 63~64쪽.
통일교육원, 「장기반 통일교육과정 도덕·사회과 교사 설문조사」

한편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관련 학교와 교육청 및 단위 학교 교육관리자의 협조 및 지원을 조사해 본 결과,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 제도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며, 교육 관리자들과 교사들이 통

5) 이장희 외,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서울: 통일부, 2003); 이 조사는 본 연구를 위해 본 주제 연구자인 권영경교수가 교육대상이었던 도덕·사회과 교사 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도덕·사회과 교사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이들이 교과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핵심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용하는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각급 학교 별전 교과 교사들에 대한 것이어서 도덕·사회과 교사들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남북한의 문화 이해를 위한 모둠활동 프로그램 개발”(통일교육원 2001년 도덕·사회과 전문(장기) 통일교육 연수과정 제3기 5분임 보고서, 2001) 참조
7)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통일교육원, 2000), 62~72쪽 참조. 이하 전국적 조사 결과는 이 연구를 참조하였다.

일교육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또한 단위학교 교육관리자들이 시·도 교육청의 연간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임으로써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교내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보면 학년 연간계획을 세울 때 안전교육관련 통합교육으로 연 15시간 이상을, 성교육으로 10여 시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 교육도 이처럼 연간 교육안에 포함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적이지는 않더라도 통일 교육 운영 내용이 포함된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안 예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지원 및 협조의 측면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예산 지원이나 학교 통일 교육 계획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교장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자(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청 관계자 포함)의 통일교육과 관련한 의식 수준은 극히 저조하고, 다른 수위 교과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교장을 비롯한 지도급 교사들이 확고한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학교 관리자에게 의해 결정되겠지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통일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장의 무관심은 교과 교육 활동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고, 학교장의 관심은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통일의식도 그리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통일의식 조사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 중에 ‘통일교육이 부진한 이유’를 묻는 항목이 있었다. 초·중등 교사들은 그 이유를 ‘합의된 방

8) 오기성, “인천광역시 초등교사의 인식을 통해 본 통일교육의 방향”, 기전문화연구, 제31집(2004), pp.185~186.

향이 없어서 ‘라고 하는 응답에 30%이상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도덕과 담당 교사들의 상당수가 도덕과는 순수한 도덕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 연구자는 많은 사례를 통해 보았다. 일부 교육관리자 및 일반 교사들 또한 통일교육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흔히 듣는 말이 “통일교육 그거 꼭 해야 되요?”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연수원에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들의 견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교원연수원에서 통일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들이 말로만 통일과 안보를 외치지, 실제로는 지적인 측면과 관심 및 열정이 저하되어 있다”는 강사의 경험담은 이를 실증해 준다. 교사들은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중요시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사회, 윤리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고 한다. 아울러 현재 교사 대상 통일연수가 있기는 하나 연수 점수 취득에만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론과 지식적인 면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고,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심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한 경우가 많다.

5. 교사 연수와 교육 현장의 갈등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은 교원 통일교육 연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대부분 시·도 교육연수원 및 교육청의 경우 일회성 세미나나 워크숍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직무연수 과정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과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 초등과 중등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초·중등통합 직무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기 힘든 경우 통일교육원의 위탁연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원 내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를 보면, 자격 연수나 일반 연수과정에서 2시간 정도의 교양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전국적 단위에서 보면 4개 기관 정도가 해당된다. 이상의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원대상 통일교육 연수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교원 통일교육 연수 관련 현황

지역	직무 연수	위탁 연수	연수원 과목개설	금강산 체험연수	세미나, 워크숍	시범 학교	기타 및 비고
서울	○(160)	○(400)	○	○(930)		2교	장학지도
부산		○(85)			○(1회)		
대구		○		○(44)	○(1회)		
인천		○			○(3회)	1교	
광주		○			○(1회)	1교	
대전	○	○			○(1회)		'04 중등직무 운영
울산		○					
경기		○(374)	○	○(213)		2교	통일체험학습장 운영
강원		○(99)		○(114)	○(1회)	2교	원격직무연수(248)
충북	○(40)	○			○(1회)		
충남		○		○(40)	○(1회)	2교	
전북	○(37)	○	○	○(128)		2교	초중등통합 운영
전남		○				1교	
경북		○(146)			○(3회)	3교	
경남		○				2교	
제주		○	○			1교	

*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기본계획 (2005), pp.90~114를 재구성

문제는 연수 내용이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를 띠므로써 남남갈등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2004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통일교육장학협의회 연찬회 회의자료에서 제시된 한 강의 원고에서는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의 이중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원고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간섭을 받기 쉬우며, 심하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겪어 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세계화 시대의 한반도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무한한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북미의 NAFTA, 유럽의 EU, 동남아의 ASEAN 등 지역간 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만은 지역간 연합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는바, 이는 곧 이 지역이 역사적·지정학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서는 상호 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지역평화의 주창국이라는 우리 민족의 원대한 목표도 동시에 추구될 때 안정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⁹⁾

반면 2004년 6월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북부지회에서 주관한 초등교사 통일 아카데미 “민족과 통일”에 제출된 강의 원고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원고는 통일의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 제일의 방대한 무력을 갖고 있는 군사강국이며,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힘도 막대하다고 본다. 현재 미국은 북한 붕괴를 노린 선제핵공격전략을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전략증강 사업을 추진해 오는 한편 실전을 방불케하는 전쟁연습을 수시로 벌이면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남한 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배력도 여전히 지대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원고는 남한의 정치경제체제를 미국의 식민지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원고가 규정하는 ‘친미반통일세력’이 아직도 사회와 정부에 포진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에 방해가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친미반통일세력’의 ‘반북대결책동’을 분쇄하고,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법과 제도를 철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9) 교육인적자원부, 통일교육장학협의회 연찬회 회의자료 (2004), p.39.

“그리고 남한의 친미반통일세력은 어느 정도 정국주도권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뿌리내려온 그들의 지배망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정권과 사회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어쥐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반통일적이며 반민주적인 파쇼악법들과 공안기관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힘과 지배력이 아직 엄연하게 살아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들이 앞에서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잘 활용하면서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전쟁책동 반통일적 책동을 분쇄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반드시 열어 놓아야 한다. 여기서 특히 올해 통일운동 앞에 놓여진 과제중의 하나는 내년 2005년을 자주통일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조국통일 원년의 의미는 6.15공동선언 전면이행으로 조국통일의 싹을 키우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즉 6.15 공동선언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친미반통일세력들의 반복대결책동을 분쇄하고 반복대결을 고취시키는 제반 법과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¹⁰⁾

인용된 자료에서 보듯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장학 자료는 통일문제가 지닌 국제성과 자주성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가 주관한 연수자료에서는 통일문제를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완성해야 할 문제로 보면서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에서는 적과 동지가 선명하였고, 그럼으로써 비교적 가치기준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통일교육에서는 서해교전이 일어나면서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경계해야 할 적이지만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동포로서 북한의 구성원들, 6·25와 대북 지원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쟁점적 사안들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10)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북부지회, 2004 초등교사 통일아카데미 민족과 통일 (2004), pp.30-31.

남북관계가 2000년 들어 화해협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현재 학교 단위의 통일교육은 기존의 반공적 시각과 안보적 시각, 그리고 평화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의 시각이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갈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한편에서는 북한사회를 소개하면서 주민들을 동포이자 이웃으로 부각시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나 서해 교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과 같은 사건을 제시하면서 군사적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입장은 현재에도 극단적인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나아가 집단간, 세대간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III.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1. 실패러다임 : 체제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문화적 접근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과 체제중심의 접근을 들 수 있다. 체제 중심의 접근이란, 남북한의 이념과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체제, 교육체제, 통일정책 등과 같은 사회 구조와 제도, 정책 등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념과 체제가 추구하는 바와 인간의 의식구조가 거의 일치한다는 전제 아래 체제외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과론적 설명을 추구한다.¹¹⁾

이러한 제도나 정책, 이념과 체제에 중점을 두어 온 통일교육에 대한 체제 중심의 접근은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이해교육에 큰 공헌을 해 왔다. 주로 6차 교육과정까지의 통일교육 내용은 이러한 경향을 많이 지녀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체제중심의 접근에서는 인간의 의식구조에 대한 이념과 체제의 기계론적 결정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체제나 이념, 제도, 정책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들어설 여지가 희박하다는 단점이 있다. 즉 통일이라는 문제가 국가통합이요, 정치제도, 경제제도 등의 통합이지만, 이를 만들어 가는 주체는 사람이요, 통일 이후 상이한 이념과 체제속에서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 진정한 화합을 형성하고자 할 경우, 이것의 주체도 역시 사람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제도는 있으나 인간의 의식이나

11) 오기성, “도덕과 통일교육에 있어 사회문화적 접근”, 『국민윤리연구』 (2004. 겨울).

가치관의 화합이라는 요소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제도나 정책, 이념과 체제보다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즉 인간의 의식구조와 일상적인 삶에 대한 체제와 이념의 기계론적 결정론에 의한 설명보다는, 양자간의 간극에 주목하고 체제내적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중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특정 사회의 행위자와 그들의 삶, 예컨대 가족관계, 의식구조, 의식주생활, 학교생활, 관습 등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에 관심을 갖는다.

이념과 체제를 보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는 곧 지식사회학에서 말하는 존재피구속성을 전제하고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해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남북한의 이질성을 배타성 내지 우월성보다는 다양성으로 보고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여 상호보완에 의한 상생을 지향한다. 아울러 소극적 안보의 개념을 넘어 인간을 둘러싼 모든 폭력적 요소의 극복이라는 적극적 평화개념에 기초하여 남북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남한내의 평화에도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종전의 체제중심의 접근을 포괄할 수 있다. 다만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이 출발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체제중심의 내용으로 확대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체제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로, 통일교육 내용에서 정치적 대결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한 의사소통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념이나 체제 중심의 접근은 남북한의 이질성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의 오류에 중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비교적 이질성이 약하고 동질적 측면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사람간의 대화를 증진시킨다.

둘째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멀리있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의 관심에 근접함으로써 가까이 있는 통일교육을 지향한다. 체제중심의 접근이 학생들의 관심이나 생활과 거리가 먼 내용, 예컨대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등을 다루는 데 비해,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북한 주민과 학생들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학생들의 가치관, 관습, 도덕규범, 의식주생활 등을 중요시한다.

셋째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남북 양 사회에서의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일정하게 수용하게 하며,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서로의 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훈련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넷째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이 갖는 장점은 남북한 사회의 분단 반세기 동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동질적 측면을 소개함으로써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과거에 남북한 사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이질성의 극복과 동질성의 회복 및 확장’¹²⁾이라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¹³⁾

다섯째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통일문제의 자주성과 국제성의 조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를 추구한다. 물론 자주와 원칙이 우리 민족의 힘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분단된 당시와 비교하여, 국제적인 환경, 남북간의 처지가 달라졌지만, 통일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듯이 민족의 힘을 모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이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통일을 성취하는데서 우리 민족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현재의 한반도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 4대 강대국에 의해 안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중심의 접근은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힘에 바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통일의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의 힘이 뒷받침될 때만이 주변국들의 협조 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역량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12) 통일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4), p.8.

13) 오기성,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 『통일정책연구』(통일연구원), 제10권 1호 (2001), pp.134 ~135 참조.

끝으로, 사회문화적 접근은 적극적 평화를 지향한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는 전쟁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들’ 즉,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환경)’이 조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란 ①전쟁으로부터의 해방, ②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③질병으로부터의 해방, ④무지로부터의 해방, ⑤비참한 주거생활로부터의 해방, ⑥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호, ⑦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⑧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 개념을 이렇게 적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사회문화적 접근에서 볼 때, 종전의 안보의 문제는 이 적극적 평화의 개념 속에 포용된다. 즉 안보는 고귀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교육할 경우, 사회문화적 접근에서는 남북한간의 평화문제 이전에 학교생활에서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발한다. 즉 생활속에서의 평화만들기가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학교생활이라는 미시적 차원이 남한 사회내에서의 평화, 남북한 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라는 계열성을 가지고 확대된다.

이러한 접근은 너무 거대한 담론적 성격을 지니는 평화 내지 안보 개념을 학생들의 생활세계에서 출발하여 인식시킴으로써 ‘가까이 있는 통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평화 능력 함양은 학습자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남남갈등을 대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이상의 통일교육 내용 선정에 있어 체제중심의 접근과 체제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체제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문화 중심 접근

	체제중심의 접근		체제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념·체제결정론 • 일방지배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념·체제의 부분적 결정론 • 상호의존모델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외적 관찰자의 입장, 설명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내적 행위자의 입장, 이해 지향
가치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에 기초한 체제우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에 기초한 상호보완성
주요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영토 • 정책,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와 삶 • 일상적 생활문화
내용요소	통일문제	통일정책, 방안에 중점을 두는 체제 통합	의식 및 가치관 포함 생활세계 통합에 중점
	통일환경	냉전적 환경하에서 국제공조 강조	탈냉전적 환경하에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강조
	평화문제	소극적 평화개념의 군사안보 차원에 중점	적극적 평화개념의 인간안보 차원에 중점
	이념과 체제	독재체제와 주체사상의 문제점 강조	주민들의 정치의식에 초점
	경제	자립적 계획경제제도의 비효율성 강조	주민들의 경제생활 및 경제의식에 초점
	사회	조직생활 및 통제메카니즘 강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의식구조에 초점
	문화	1인 지배의 도구적 측면과 상대방의 다름 강조	문화의 같음과 다름의 객관적 조망 강조
	교육	교육제도 및 1인 우상화 관련 교육 강조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과 가치관에 초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 평화 강조 • 체제상의 통일 강조 • 화합보다 지배에 초점 • 동질성의 강조 • 차별에 기초한 우월성 확인 • 자문화중심주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평화 강조¹⁴⁾ • 삶의 통일 강조 • 지배보다 공존 강조 • 다양성의 인정 • 상호보완에 기초한 상생 지향 • 다문화주의적 접근

* 출처: 오기성,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분석”, 초등도덕교육, 제11집 (2003), p.76에서 재구성.

14) 이러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은 최근 강조되는 인간안보의 의미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인간안보는 ① 국가보다 개인과 그들의 공동체를 안보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② 국가의 안보는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③ 폭력적·비폭력적 위협으로부터 민중의 안전을 보호하고, ④ 개인의 안녕을 지구적(생태적) 평화를 성취하는 것과 결합하고, ⑤ 기존의 국가안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1994) 참조.

2. 내용 및 방법의 변화

1)통일의 당위성에서 필요성으로

기성세대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당위적 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통일의식의 변화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통일을 민족의 숙원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필요성의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이러한 의식적 특성은 학교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먼저 제시되고 다음으로 당위성이 그에 첨부되는 형태가 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이는 곧 현재 학습자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에 맞추어 접근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통일문제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초위에 규범적, 당위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은 현재 학교 통일교육에서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부분 이러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및 숙고 없이 당위성 차원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학습자들은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곧 학교 통일교육이 출발점에서부터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 필요한 것은 통일이 필요성의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남북한 군축을 통한 국방비 감소가 학생들의 1인당 교육비에 도입될 경우 학습자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설득력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원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풍부하게 개발하여 초청교육 및 사이버 연수에 투입함으로써 교사들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변화하는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문제 이해』에서 제시하는 통일의 당위성 식의 교육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히,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초·중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통일이 가져다 줄 혜택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2) 학습자의 생활세계로부터 출발하는 가까이 있는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환경 변화와 세대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 되, 추상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통일교육, 당장의 통일을 ‘꿈꾸는’ 당위론적 통일교육보다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각종 설문조사와 통일교육 시범학교 보고서, 그리고 필자의 대학에서의 강의 경험을 보더라도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이나 또래 청소년들의 생활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북한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까? 개학과 방학은 언제일까?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과외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의 특수목적고와 같은 특수한 학교가 있을까? 수능시험이 있을까? 재수생도 있을까? 속칭 인류대학은? 서태지와 같은 10대 스타가 있을까? 오빠부대는? 야간자율학습이 있을까? 서구식 문화가 유입되고 있는가? 노래방은 있을까? X세대가 즐겨보는 만화영화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을까? DDR이나 게임방이 있을까? ‘왕따’나 ‘공주병’이 있을까? 헤어스타일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식적·추상적인 통일교육, 예컨대 분단의 원인, 과정, 폐해, 교훈, 통일문제의 성격,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 이해 식의 접근 보다는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과 주변의 일상 생활사례와 관련된 북한 사회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보다 적합한 통일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통일교육원 초청 교육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북한의 생활문화, 학습자들의 또래 문화 등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N세대의 눈에 맞추는 통일교육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관련 내용을 교수자의 가방에서 꺼내어 학생들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탭스콧(Tapscott)에 의하면 N세대의 문화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고 한다. 즉 ① 극단적 독립심, ② 감성적·지적 개방성, ③ 포용성, ④ 자유로운 표현과 강한 주장, ⑤ 혁신, ⑥ 성숙하기 위한 열정, ⑦ 탐구심, ⑧ 성급함, ⑨ 기업적 이익에 대한 민감성, ⑩ 사실 확인과 신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N세대들에게는 선형적 학습보다는 하이퍼미디어 학습이, 강의식 학습보다는 참여와 발견의 학습이, 교사 중심보다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을 이끌어 갈 주인공들이기에, 그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에 적합한 형태의 통일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표 6〉 통일교육의 방법

유 형	방 법	
협동(모둠)학습	①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기 ③ 통일포스터 ⑤ 전문가 수첩 만들기	② 통일광고전 ④ 집단 작품 만들기 ⑥ 단어 연결하기
자료활용 학습	① 통일 지도 만들기 ③ 초대장 만들기 ⑤ 통일편지와 그림 ⑦ 통일문집 만들기	② 통일의 달 행사 ④ 만화 완성하기 ⑥ 그림보고 느낌 나누기
시청각 매체 활용 학습	① 북한 바로 알기 게시판 ③ 광고나 만화 활용하기 ⑤ 영상 작품 활용하기	② 통일 명상 ④ 남북한 노래부르기
토의학습	① 고정관념 깨기 ③ 이야기 나누기 ⑤ 통일합	② 북한의 창 ④ 다짐해 보기(affirming) ⑥ 3분 발언대
놀이학습	① 통일 어울 한마당 ③ 통일 주사위 놀이 ⑤ 도전 통일벨 ⑦ 십자말 풀이 ⑨ 가치경매게임	② 말(言) 판놀이 ④ 즉석 개그대회 ⑥ 통일장기자랑대회 ⑧ 통일 주제 4행시 ⑩ 상호협동 딜레마게임
체험학습	① 가상 생활문화 체험학습 ③ 통일학교 ⑤ 전방 및 북한관 견학 학습 ⑦ 홈스테이	②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 ④ 문화예술·스포츠관람 ⑥ 하나원 견학 및 함께 생활하기
컴퓨터 활용 학습	① 전자우편(E-mail)활용하기 ③ 인터넷을 활용하여 과제 해결하기 ⑤ 통일 관련 설문조사하기	② 가상현실체험(simulation) ④ 전문가와 토론하기 ⑥ 통일 관련 웹출판하기

그러므로, 통일교육 또한 ‘이것을 따르라!’는 식의 명령식·주입식 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상호 교류가 가능한 양방향적 교육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이끌기 위한 학교 통일교육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약하고 꼭 공부해야 할,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과 마음으로 느끼는 교육, 직접 체험해 보고 실천해 보는 교육은 어느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의 교육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교실내 평화만들기로부터 출발하는 통일교육

이제 통일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평화능력 함양을 중요시해야 한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평화교육은 갈등을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평화교육은 갈등을 상호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라고 보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여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안보는 고귀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평화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 내부의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발한다. 즉 우리사회 평화만들기가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관점을 취할 경우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접근에서 볼 때, 종전의 안보의 문제는 이 적극적 평화의 개념 속에 포용된다. 즉 안보는 고귀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교육할 경우, 사회문화적 접근에서는 남북한간의 평화문제 이전에 학교생활에서 ‘왕따’와 같은 비평화적 현상과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발한다. 즉 생활속에서의 평화만들기가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학교생활이라는 미시적 차원이 남한 사회내에서의 평화, 남북한 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라는 계열성을 가지고 확대된다.

이러한 일상적 학교생활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평화교육과 세계적 차원이라

는 거시적 평화교육의 기초 위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 민족과 사회를 비평화적인 상황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안보교육도 이러한 평화교육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너무 거대한 담론적 성격을 지니는 평화 내지 안보 개념을 학생들의 생활세계에서 출발하여 인식시킴으로써 ‘가까이 있는 통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이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남남갈등을 대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5) 통일 이후의 진정한 준비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통일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변화는 적응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결국 적응이 안 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통일 후 우리가 겪게 될 주요 심리적 문제들은 현재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부적응 실태를 기초로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가치관과 성격에서의 차이와 더불어 언어습관의 차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생활관습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의 부족, 거대한 정보량에 압도되어 생기는 지적 열등감, 사회적 지위의 격하에 대한 불만, 차별대우에 대한 민감성, 언어소통문제로부터 받는 위축감, 돈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에 대한 집단주의적, 의존적 태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과 사고의 경직성, 남한의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과 심리적 갈등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어 막 풍요를 맛보기 시작한 남한 사람들의 졸부적인 천박함이나 우월감에 부딪히면 당연히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나 긴장은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 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통일된 사회를 이루고 하나의 사회속에서 삶을 일구어 갈 때, 더

큰 범위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의 목표는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¹⁵⁾ 따라서 제도적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 사람의 통일, 의식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에 중점을 두는 것은 통일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6) 학교통일교육지침의 재정립

서독은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1978)을 통해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지침으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동서독 관계와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독일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학교 통일교육 지침도 교재적 성격이 강한 ‘지침서’ 개념보다는 ‘지침’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학교급별로 다루고 있는 통일교육 내용에 기초하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북한 사회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바람직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통일교육 지원법과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을 반영하여 개발된 일반용 통일교육 기본 지침을 준거로 하되,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지침은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닌 전문가, 학자, 교사, 교육전문직 종사자, 교육단체 등의 견해를 수렴하여 정파와 세대·계층별 차이를 불문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전술적 범주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근본 토대가 되는 체계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 통일교육 지침의 재정립은 앞서 지적한 교원 연수의 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극단적 관점을 극복하고 나타나는 세대들에게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5 정진경, “남북 문화이해지를 활용한 남북 상호 이해 교육”,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정 강의안, (2001) 참조; 오기성 외,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0) 참조.

IV. 결 론

흔히 교과서에서 제시되듯이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남긴 민족이다. 양육강식이 만연하던 동북아 대륙 역사에서 자기 언어와 영토, 민족 의식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살아남은 나라는 중국, 러시아, 몽고, 한국 뿐이다.

그처럼 우리 민족은 대단히 끈질기고 힘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외침을 견뎌냈고, 문명의 토착과정에서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한글’이라는 언어시스템을 발명했다. 근래에는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이라는 고통을 극복 하면서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부끄러움 뿐이요 과거를 통해서 원한과 불만밖에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양반과 상놈 사이에 벽을 쌓았으며 6.25때는 형제를 죽이면서 애국자, 사상가, 지도자 또는 영웅이 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인류는 사랑할 수 있었으나 내 옆에 있던 형제는 사랑하지 못했다. 원수도 내 옆에 있는 친구였다.

지금 우리 민족이 분단속에 있고 남한 내에서도 남남갈등이 상징하듯 사분오열되어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 지역감정을 철폐해야 하는 국민적 과제, 그리고 남북의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과거의 지배에 살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없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한한 가능성과 장래를 가진 미래의 한국이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과거에 둔다면 우리는 원수지간이며 화해를 할 수 없고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 오로지 밝은 장래에 정체성을 둘 때만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한 식구로 살 수 있으며, 남북통일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고, 지금의 고통을 인내심으로 참아낼 수 있다. 우리민족의 장래에서 우리를 찾아야 한다. 미래는 우리의 소망이며 희망이다. 우리는 미래의 설계자인 것이다.

이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서 통일이라는 민족옹비의 도약대가 있다. 이 미래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어찌면 다음 세대들이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미래의 세계에서 주역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민족통합을

생각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훗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통일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부끄럽지는 않아야 한다.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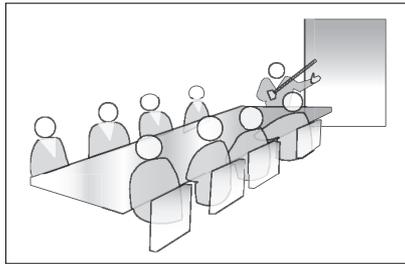
- 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서울: 서월, 1999)
- 교육인적자원부, 『통일교육장학협의회 연찬회 회의자료』(2004)
-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반편견교육』(서울: 인간 사랑, 200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교육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2002. 6)
- 박현희 외, 통일은요 (서울: 푸른나무, 2000)
- 오기성 외,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0)
- 오인택,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 편, 『통일준비』(서울: 오름, 1997)
- 운웅상 외,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서울: 통일교육원, 2003)
-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1994)
- 이기범 (20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통일교육협의회 주최 2004 청소년통일교육 담당자 심화교육 제1차 연수 자료집.
- 이근철, 오기성, 통일교육론 (서울: 엑스퍼트월드, 2001)
- 임채완 외, 청소년 통일 무관심 실태와 해결 방안 (2004 통일교육원연구 용역 보고서3)
-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북부지회, 2004 초등교사 통일아카데미 민족과 통일(2004)
- 정진경, “남북 문화이해지를 활용한 남북 상호 이해 교육”, 통일교육원, 학교 통일교육과정 강의안, (2001)
- 정현백 외,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서울: 통일교육원, 2003)
- 차우규, 학교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초, 중등학교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 연구(서울: 통일부, 2002)
- 추병완,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적 접근의 타당성”, 『통일문제 연구』, 상반기호 (2003).
- 추병완 외, 통일교육 (서울: 하우, 2003)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06)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6)

통일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6)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3)



토론문 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모색



심근석/장산중학교 교사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모색



장산중학교 교사 심근석

I. 들어가며

발제자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는 학교 현장에 적합하며 발전적 논의에 있어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지적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지적 및 논거는 역시 앞으로 학교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논의의 준거를 제공하고 있는 바,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안(도덕과)에서 어느 정도 수정·보완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통일교육의 내용이 현재의 7차 교육과정에서보다 더 축소될 예정이어서 걱정스럽기도 하다. 먼저 교육과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자가 제시한 논의의 준거들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통일교육은 다양한 교과 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 행사활동 등 거의 모든 학교 교육의 형식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 교육이다. 그리고 교과서와 처방된 학습자료 외에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떤 교과나 주제 영역 학습보다도 다양한 e-러닝 전략을 적용할 여지를 제공한다. 수업 경험을 통해 검증된 N세대의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e-러닝 전략들을 선별해 소개한 후 영상 편집 제작 및 활용수업을 언급하고자 한다.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의 활성화·일반화는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통일교육 시범학교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동반하는 충실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찾아보기로 한다.

II.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영된 통일교육

1. 통일교육 내용 축소와 평화 교육의 강화

〈표1〉 7차 교육과정과 주5일제수업 대비 교육과정 개정안의 통일교육 관련내용 비교¹⁾

학교급	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	주5일제수업 대비 교육과정 개정
초등학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사랑하기 •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상징과 나라사랑 • 법과 규칙 지키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문화 유산 애호 •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중요성 알기 •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 갖기 • 해외동포에 관심 갖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평화적 해결 • 남북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 북한 동포와 새터민의 삶 이해하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과 관용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중학교	1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 바람직한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적인 문제해결과 폭력 예방 •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북한주민과 민족애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3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고등학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윤리 • 민족의 윤리 • 평화로운 삶의 추구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적합성검토」지침과 기준(도덕)",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25-27

발제에서는 현행 7차 교육과정 도덕과의 경우 6차 교육과정보다 내용이 30% 정도 축소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이 차기 교육과정 개정안으로 나아가면 더 축소될 예정이다.

각 교과와 중첩되는 부분을 줄이고 교과 고유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일인지도 모르지만, 자칫 통합교과 영역으로 각 교과에서 서로 소홀히 할 염려가 있다. 도덕과만 살펴보면, 10학년에서 민족분단의 과정이나 통일 정책이 삭제되고, 평화로운 삶의 추구라는 확대된 평화교육이 삽입된 점을 들 수 있다. 민족분단의 과정이나 통일정책은 사회과학적 지식(사실)이어서 윤리학적 지식 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다. 모든 학년에서 모든 가치관계 영역을 다 다룬다는 취지에서 국가/민족/지구공동체 영역으로 국가, 민족, 지구공동체 윤리가 체계화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 변화는 <표1>과 같다.

2. 내용 기술상의 변화

발제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들이 개정될 교육과정에는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북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가 통합되어 하나의 소단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기술방식도 지금까지제도와 생활구조 등 체제와 주어진 사실 중심의 기술이었다면,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북의 일상생

<표2> 중학교 2학년 통일교육 단원 주제 예시²⁾

학년	통일 교육 관련 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	주 5일제 수업 대비 교육과정 개정
중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 북한 주민의 정치 생활 •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 • 북한 주민의 사회 생활 • 북한 주민의 교육 및 문화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과 민족애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 자유, 평등,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 • 민족 공동체의 개념과 민족 정체성의 의미 • 북한 주민을 포용과 지원 혹은 비판과 계몽의 대상으로 접근했을 때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검토

2) 조난심,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pp115-116

활동 등 사회문화 중심으로 재미있게 기술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기초한 가치관 단 중심의 규범적 접근에 주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덕 교과와 정체성 유지에도 관련이 있지만, 학생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여서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문제 제기를 수렴한 결과인 것 같다. 북한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단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표2>와 같다.

III. N세대 대화창구로 커뮤니티 통일 수업

이제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물리적 공간과 가상적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살고 있다.³⁾ 즉,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장소에서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e-러닝이 떠오르고 있다.

e-러닝은 웹 기반 학습(web-based learning), 컴퓨터 기반 학습(computer-based learning), 가상공간 교실(virtual classroom), 디지털 협업(digital collaboration)과 같은 광범위한 적용 및 과정이며,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위성방송, 쌍방향 TV, CD-ROM을 통한 콘텐츠의 전달을 포함한다.⁴⁾ 좀 더 의미를 좁혀 말한다면, e-러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학습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극대화하면서, 분산형의 열린 학습 공간을 추구하는 교육이다.⁵⁾

근무하는 장산중학교는 충분한 첨단 e러닝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어떤 교과든지 마음만 먹으면 1인 1PC 멀티미디어실이나 그룹 멀티미디어실에서의 수업이 항상 가능하며, 교실에서도 모듈별 e러닝이 가능하도록 학습용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욕심이 생겼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소집단 대화학습’을 ‘소집단 웹 토론학습’으로, 대화를 채팅으로, 모듈 노트를 웹 게시판/자료실로, 개인 통일작품집을 블로그 작품집으로 바꿔보고 싶어졌다. 무엇보다 N 세대의 대화의 양식을 내가 가장 애착을 갖는 통일 수업 활

3) [한국일보]. 2005년 4월 18일자

4) Eva Kaplan-Leiserson, "E-Learning Glossary", <http://www.learningcircuits.org/glossary.htm>.

5) 광덕훈, "e-러닝의 발전을 위한 제언", [KERIS], 2004 창간호 vol. 1), p.12

동에 초대하고 싶었다.⁶⁾

ICT의 현란함과 기능적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장산 중학교에서 통일 수업에 적용해 온 대표적인 e-러닝 전략들을 소개하면 웹 자원 활용 전략, 웹 토론 전략, 그림판 및 서사적 글쓰기 전략, 웹 출판 전략, 웹 협동 전략 등을 들 수 있다.⁷⁾

1. 통일교육을 위한 e-러닝 전략⁸⁾

가. 웹 자원 활용 전략

(1) 전략의 특징

(가) 인터넷을 활용하여 북한과 통일에 관한 다양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나) 학습 주제에 적합한 최신의 정보 탐색과 습득이 가능하며 사례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2) 주요 학습 활동

(가) 검색도구 사용, 필요한 정보의 선택 및 수집

(나) 정보 분석 및 가공을 통한 결과물 산출

(다) 산출물 탑재 및 발표

(3) 적용 학습 영역

(가) 개념 정리, 선행연구 조사를 필요로 하는 학습 영역

(예, '평화', '통일'의 개념, 북한사회의 이해, 통일방안 사례연구 학습 등)

(나) 학습 주제에 따른 주변사례 검색을 통해 실천의지 강화를 요하는 학습 영역

(예, 정전협정하의 군사적 충돌, 군사협력과 긴장 완화의 사례 학습 등)

(다) 문제 해결 방안 검색, 쟁점 이해를 요하는 학습 영역

(예,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 사례,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 학습 등)

6) 심근석, "온라인 디지털 세계로의 통일교육 초대", 통일교육소식, 2005.10호, p.23-24

7) 심근석, "학생과 함께 하는 도덕 수업",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도덕과 교실수업·평가 방법 개선 선도 학교 5차 연수 자료집], 2004, p.40.

8) 2004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기획한 『초·중등 교과별 e-러닝 전략 적용 수업 사례집』 만들기 「중등 도덕」 부분에 같이 참여한 권오숙, 김도현, 서갑철, 황덕순 선생님과 협동 현장 연구에 의한 산출물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4)유의 사항

- (가)과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보 탐색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지만, 학생 스스로 정보 감별 및 분석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제 수행 후 상호평가와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야 한다.
- (나)학생들이 각종 정보에 접할 때는 항상 과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안내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과다하게 검색하지 않도록 한다.
- (다)지나친 경쟁의식 유발과 흥미 위주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 (라)결과물을 산출하고 탑재할 때 고난도의 ICT소양 능력을 요구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은 피해야 한다.
- (마)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정보 활용 예절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나. 웹 토론 활용 전략

(1)전략의 특징

- (가)웹의 상호작용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토론방(채팅),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통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주어진 학습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함
- (나)웹 토론의 과정이 텍스트로 남기 때문에 토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2)주요 학습 활동

- (가)토론용 웹 공간 선택하기 (토론방/게시판/전자우편)
- (나)웹 토론을 위해 웹 자원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하기
- (다)주제 선정에서 결론 도출까지 협력하기(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 (라)절차와 규칙을 지키면서 웹 토론하기
- (마)토론의 결과와 과정을 상호 평가하며, 실제 생활에 적용해보기

(3)적용 학습 영역

- (가)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영역
(예,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모색,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방안 모색 등)
- (나)쟁점이나 인물에 대한 찬반토론을 필요로 하는 학습 영역

(예, 북한을 보는 관점, 대북 지원의 방법 등)

(다)도덕적 추론을 통해 가치 갈등 상황 해결을 꾀하는 학습 영역

(예, 군비경쟁과 안보의 딜레마 해결하기, 서해교전의 희생자 가족과 꽃게잡이 어부의 갈등 해결하기)

(4) 웹 토론을 하면 좋은 점

(가) 실제 대면 토론에 소극적인 학생이 웹 토론에서는 적극성을 띄는 경우가 많다. 웹 토론에 재미가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쌓이다보면 실제 대면 토론에 임했을 때도 점점 활달해진다.

(나) 모둠 토론과 같이 독립된 토론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실제 대면 토론의 경우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웹 토론에서는 교사가 중간에 들어가 보더라도, 토론이 진행되어온 질과 양을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어서 교사의 토론 지도가 아주 적합하고 쉬워진다.

(다) 웹 토론은 모든 과정이 문자로 남기 때문에 토론 내용을 잘 갈무리해 두면 훌륭한 수행평가의 자료가 된다.

(라) 웹 토론은 토론방을 활용하는 동시적 웹 토론과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활용하는 비 동시적 웹 토론 중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거나 같이 병행할 수 있다. 모둠 토론을 할 때는 토론방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모둠 간 전체 토론이나 학생 상호 평가 등을 할 때에는 게시판이나 자료실과 꼬리 글 기능을 활용하면 좋다. 즉, 동시적 웹 토론과 비동시적 웹 토론을 같이 병행하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 토론수업은 자기 주도적 개별학습과 협동적 집단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1인1PC의 환경에서의 웹 토론에서는 웹 자원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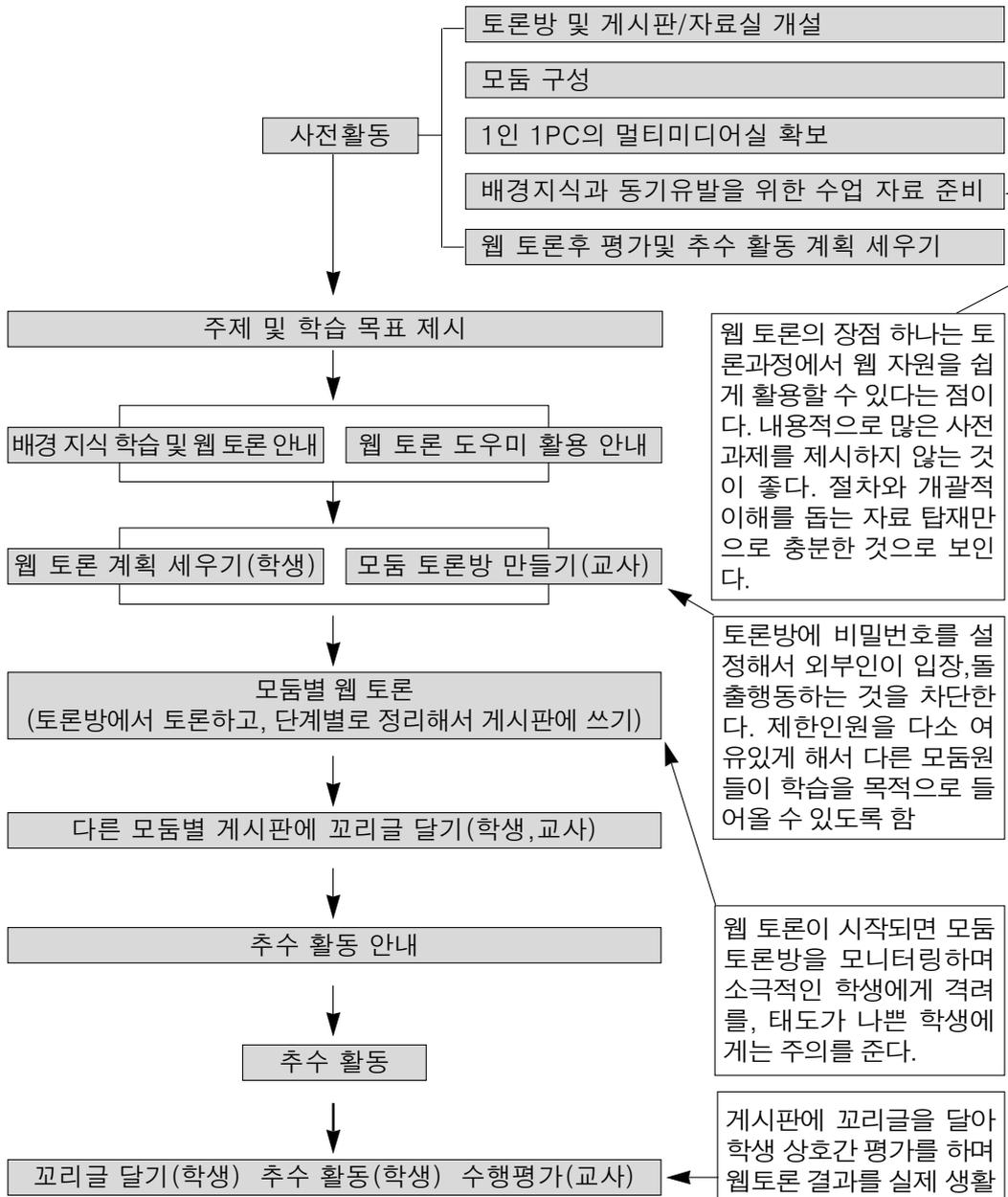
(바) 웹 자원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가공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은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학생 산출물들을 비교하면서 활용된 정보의 질과 양을 함께 평가해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진실하게 웹 토론 수업에 임하다 보면 스스로 조금씩 더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시간을 두고 함양해 가는 경향이 있다.

(사)자연스런 웹 토론이 되도록 하면, 학생들의 평소 잘못된 인터넷 사용 습관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티켓을 지도하는 부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웹 토론은 어디까지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토론이므로, 실제 대면 토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웹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능력은 결국 실제 대면 토론의 능력을 함양하고, 관련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5)유의 사항

- (가) 웹 토론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고 가공할 기회를 주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면 좋다. 자기 주도적 개별 활동과 협동적 토론 활동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모둠 토론방을 만들 때 비밀번호를 걸어서 외부 불청객이 들어와서 토론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교실 내 학생들은 동일한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다른 모둠 토론방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한다.
- (다) 토론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유의 사항인 지도 모르겠다.
- (라) 학생들의 온라인 일상언어는 경어가 아닌 평어이다. 토론은 경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웹 토론에서는 평어와 이모티콘 등을 허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끄는 한 방법이다. 또한 교실 밖 채팅에 있어서 네티켓을 지키도록 자극할 것이다.
- (마) 웹 토론이 일단 시작되면 교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끊고 개입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하다. 웹 토론 진행 중에 학생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웹 도우미 자료를 교사가 미리 배열해 두면 좋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에게 쪽지를 보내게 한다.
- (바) 웹 토론할 때 아이디를 예쁘게 꾸미되, 자기 이름은 꼭 들어가도록 지도한다. 웹토론의 자연스러움과 책임성을 조화시킨다.
- (사) 웹 토론 후 모둠 별 오프라인 추수활동을 과제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아) 웹 토론 과정은 학생들도 복사해서 게시판(모둠 노트)내용 말미에

전략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웹 토론의 장점 하나는 토론과정에서 웹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용적으로 많은 사전 과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차와 개괄적 이해를 돕는 자료 탑재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방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외부인이 입장, 돌출행동하는 것을 차단한다. 제한인원을 다소 여유있게 해서 다른 모둠원들이 학습을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함

웹 토론이 시작되면 모둠 토론방을 모니터링하며 소극적인 학생에게 격려를, 태도가 나쁜 학생에게는 주의를 준다.

게시판에 꼬리글을 달아 학생 상호간 평가를 하며 웹토론 결과를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는 추수 활동을 하며, 교사는 수행평가를 한다.

붙이게 하지만, 교사도 수업직후 따로 텍스트 파일 등으로 백업해 두어야 엄격한 평가가 확보된다. 토론의 과정은 이렇게 백업해둔 텍스트 파일로 토론의 내용성 평가는 게시판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웹 게시판 및 그림판 활용 전략

(1) 전략의 특징

- (가) 관련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여 실천의지를 함양한다.
- (나) 웹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심사숙고하게 된다.
- (다)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 (라) 그림판 활용법을 습득하고 동료들의 생각을 실시간 공유한다.

(2) 주요 학습 활동

- (가) 자신의 경험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게시판에 탑재한다.
- (나) 관련 정보 검색을 통하여 탐구 내용을 정리한다.
- (다) 정리된 자료를 게시판에 탑재하여 실시간 공유한다.
- (라) 실천의지 함양을 위한 다양한 표현을 완성하여 게시판에 탑재, 공유한다.

(3) 적용 학습 영역

- (가) 다양한 표현을 통해 실천의지를 함양해야 하는 학습 영역
(예,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통일 한반도의 모습 꿈꾸기 등)
- (나) 기본생활 습관과 관련된 자발적인 덕목 실천이 필요한 학습 영역
(예, 남북 서로 돕기, 남남 갈등 해결 자세 등)
- (다) 자신의 미래 모습 그려보고 뚜렷한 목표 설정을 이끄는 학습 영역
(예, 통일 한반도의 모습과 자아실현 등)

(4) 유의 사항

- (가) 웹 게시판이나 자료실의 장애 발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업 진행중에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나) 해당 과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보 탐색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 (다) 상대방 글에 비방을 하거나 폭력적인 언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교사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 (라) 게시판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의 철저한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
- (마) 그림판 프로그램이나 스캐너 사용법을 사전에 습득시켜야 한다.
- (바)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의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해 다양한 지도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수업에 임해야 한다.
- (사) 모둠원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해당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모둠원끼리 충분한 토의를 통해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력 신장에 역점을 두고 지도한다.
- (아) 학습 결과를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자) 실천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개인적인 글이나 그림을 모둠 별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산출물로 만들어 게시하여 공유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상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웹 출판 활용 전략

(1) 전략의 특징

- (가) 학생 스스로 웹상에 자신의 글과 연구 결과를 출판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한다.
- (나) 웹 상에서 학습 자료의 공유로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다.
- (다) 다양한 학습 경험의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력과 학습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준다.

(2) 주요 학습 활동

- (가) 학생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중지능별 모둠 편성 및 학습전략 선택
- (나) 웹자원 검색 및 가공을 통해 학습주제의 실천을 강조하는 학습결과물 제작
- (다) 모둠별 편집위원 검토 후 웹사이트(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탑재하고 학급

구성원들에게 발표

(라) 발표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결과물 출판

(3) 적용 학습 영역

(가) 개념의 의미 분석과 실제 생활에서의 수용을 강조하는 학습 영역

(예,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6·15남북공동선언 등)

(나)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나 현상을 다루는 학습 영역

(예, 이산의 아픔, 탈북 청소년과 화합하기, 남남갈등 해결 등)

(다) 자신이 선택한 가치나 덕목의 실천 의지를 강조하는 학습 영역

(예, 북한 바로 알기, 인도적인 북한 지원, 일상적인 평화 만들기 등)

(4) 유의 사항

(가) 이 학습전략은 모둠학습실(1모둠1PC)이나 멀티미디어실(1인1PC)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아울러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수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웹 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나) 이 학습전략은 집단탐구 모형, 가치 명료화 모형, 개념분석 모형 등에서 도입될 수 있으며, 학습 결과물을 웹사이트에 탑재함으로써 자신의 학습결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함으로써 도덕적 실천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

(다) 편집이나 웹 출판을 할 때 교사의 적절한 보조와 조언이 요구되며,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자료수집, 정리 등이 요구된다. 웹 출판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학생들 스스로 좋은 사이트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한다.

(라) 모둠별 학습결과나 보고서를 웹 문서로 작성하기보다는 그래픽 작업이나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e-Book으로 제작하여 출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 블로그나 일반 홈페이지는 대용량(보통3 - 10M이상)의 자료를 출판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지도한다.

마. 웹 협동 전략

(1) 전략의 특징

- (가) 웹 협동을 통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다른 지역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공유하여 객관적 사고를 기르는 학습이 가능하다.
- (나) 집단 탐구학습을 통해 문제사태를 협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 (다) 인원이 적어 모둠 활동이 어려웠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다.

(2) 주요 학습 활동

- (가) 프로젝트 학습방에서 프로젝트 협의하기, 친구들과 정보교환하기, 친구들의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친구들의 보고서에 댓글 달기
→ 상호 협의 능력과 객관적 사고능력의 향상
- (나) 검색도구 사용, 정보의 취사 선택 및 수집과 가공
→ 학생들의 정보탐색과 활용 능력의 향상

(3) 적용 학습 영역

- (가)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한 학습 영역
(예, 분단의 원인과 과정, 베트남 · 예멘 ·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등)
- (나) 지역간 혹은 수준별, 세대간 협력이 도움이 되는 학습 영역
(예, 남남 갈등 해결, 지역 갈등 해결 등)
- (다) 웹 협동이 가능한 폭넓은 학습 영역(예, 대부분의 통일교육 영역이 속함)

(4) 유의 사항

- (가) 사전에 협력 수업 대상학교 교사간 충분한 교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협력수업 전에 학교 개별수업을 통해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정리하고, 협력수업에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학습에 매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 (다) 학습 주제와 목표 선정이 있고 난후, 그에 적합한 협동의 대상을 찾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2. 통일교육 동영상 편집 · 제작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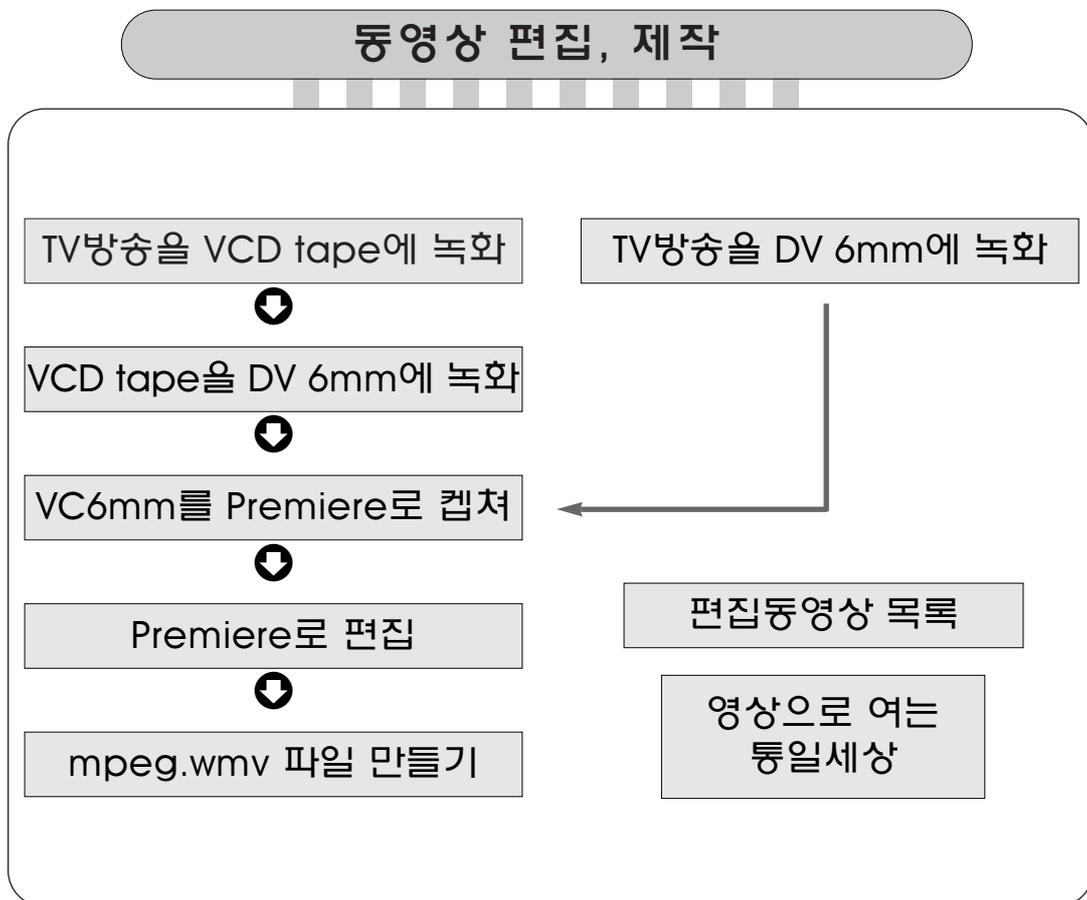
가. TV방송을 녹화 · 편집하여 영상CD 제작 (2000년~현재)

<http://user.chollian.net/~baweesol/ins-event/videolist.htm>

편집목록 참조(CD 약 300장 분량)0

나. 「영상으로 여는 통일 세상」제작 : KBS TV(저작권)와 즐거운학교(판매)⁹⁾

함께 제작(소개http://shop.njoyschool.net/event/korea/korea_index.asp)



다. 영상 활용 수업 예시

9) 정용민 · 이종두 · 심근석 · 김병연. “영상으로 여는 통일 세상”, 즐거운 학교, 2005년

제목 : 영상을 통해 전쟁과 평화의 맥락 읽어오. ¹⁰⁾

주요교과	학년	내용 영역 (주제)	수업시간 계획	수업환경	주요 학습형태
도덕	고등학교 1학년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전쟁과 평화)	1시간	1교실 1PC	모둠별 학습
정보통신기술 활용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이입 능력 증대 ● 도덕적 판단 능력 강화 ● 도덕적 실천의지 함양 				
정보통신기술 학습활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만들기 				
정보통신기술 선수학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단계 - 정보 가공과 공유 - 멀티미디어 자료의 가공 ●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자료를 수정·편집·가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1). 수업의 개요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도

-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시리즈 혹은 유튜브 영상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모둠별로 영상을 선택·편집해서 그 맥락을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일차적인 이미지에 매료되어 본래적 의미를 놓치기 쉬운 영상 세대에게 동영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맥락)를 깨닫도록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 스스로 동영상을 분석하고 직접 편집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며 말하는 활동은 아주 효과적이다.

(2). 학습목표

- 정전 체제의 임시성·불완전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한반도 핵 위협 사례를 나열할 수 있다.
- 전쟁 피해의 참상을 깨닫고 평화 의지를 다질 수 있다.

10) 심근석,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 지도자료(각론, 고등학교 도덕)”, 교육인적자원부, 2006, pp.75-78

(3). 주된 수업활동 영역/부수적인 수업 활동 유형

- 정보 만들기 / 정보 안내하기

(4). 수업시간 계획

- 1시간
- 1차시 :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큐 동영상을 편집, 분석해서 발표하기

(5). 수업환경

- 교단선진화 교실 , 빔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
- 교사(학교) 홈페이지 대용량 자료실
-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안내

(6). 수업준비

가. 교과 선수학습 능력

- 통일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를 알고 내면화할 수 있다.

나. 교사의 사전 준비 사항

- 교사가 전쟁과 평화 관련 동영상들을 1차 편집하여 모둠 수만큼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다른 짧은 동영상을 선택해도 된다.
- TV방송을 녹화해 두거나, 방송사 웹 사이트에서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녹화해서 소스 동영상을 확보한다.
- 1차 편집해서 교사(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한다.

※ KBS와 MBC 전쟁과 평화 관련 동영상 1차 편집 후 탑재한 교사홈 페이지
(출처 : <http://user.chol.com/~baweisol/videosee.htm>)

KBS 정전 50주년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시리즈 (수업용 30분으로 편집함)					학습지SCRIPT
					정전, 증오, 충돌, 공포, 평화
제1편 <정전>	제2편 <증오>	제3편 <충돌>	제4편 <공포>	제5편 <평화>	
mbc 정전 5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 시리즈 (수업용 30분으로 편집함)					학습지&SCRIPT
					1부 2부 3부 4부
1부 <위기 한반도>	2부 <북핵카드>	3부 <주변열강>	4부 <평화의 조건>		

- 동영상 편집 계획을 안내한다.
 - 5~7분가량 짧게 줄인다.
 -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을 찾아내고 시간적 혹은 논리적 순서대로 이으면 된다.
 - 동영상 자르고 붙이는 방법을 안내한다.
 - 동영상 편집을 위한 온라인 도우미를 제공한다.
- 모듈별로 편집 동영상을 선택한다.
 - 모듈장 온라인 회의를 통해 모듈별로 동영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동영상 모듈발표 양식 안내하여 동영상 맥락 분석 및 편집 작업을 돕는다.
(출처 : <http://user.chol.com/~baweosol> 자료실 202번)
- 모듈별로 동영상을 편집해서 교사(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편집이 완료되었는지 교사가 확인하고, 안 된 모듈은 교사가 도와서 완성한다.

※ 예시(출처 : <http://user.chol.com/~baweosol> 자료실)

제 ()모듬 발표자 이름 : 동영상 담당 이름 : 보조자료 제목 : 보조자료 내용 : 보조자료 형태(파워포인트, 한글 등) : 동영상 멈춤 횟수 : ()회 동영상 멈춤별 설명내용 ----- 멈춤 회수 시간 장면 설명 내용 ----- 1 ()분 ()초 ----- 2 ----- 3 ----- 4 ----- 5 ----- 느낀 점(동영상 발표후 질문을 받기 전에 발표자가 한 두 문장 정도로 짧게 말할 내용)	
<input type="checkbox"/> 125 10월 1일 정팅 내용	바위솔 2003-10-01 183 0 9 15
<input type="checkbox"/> 124 (1-1)각 모듈에서 올려야 할 것(발표자, 동영상담당자 필독)	바위솔 2003-09-29 91 15 6 7
<input type="checkbox"/> 123 (동영상)전쟁과 평화(종합)	바위솔 2003-09-29 321 122 6 2
<input type="checkbox"/> 122 동영상 맥락수업 모듈예습동영상(5-6)	바위솔 2003-09-22 121 41 4 6
<input type="checkbox"/> 121 동영상 맥락수업 모듈예습동영상(3-4)	바위솔 2003-09-22 100 37 3 61
<input type="checkbox"/> 120 동영상 맥락 모듈 예습 동영상(1-2)	바위솔 2003-09-22 122 37 7 14

- 동영상 발표를 위한 보조 자료와 발표를 위한 역할 분담과 전략을 준비한다.
- 발표자는 2명이 적절하다. (동영상 조정 1명, 발표 1명)
- 보조 자료는 그래프, 이미지 등 그래픽 자료가 좋으며 프리젠테이션에 삽입하여 정리하면 설명에 효과적이다.

(7). 학습전개과정

가. 본 수업 활동

- 발표할 동영상의 전체 흐름을 다시 확인한다.
 - 계열을 정해지면, 모둠 발표 순서를 정해준다.
- 영상의 1차적인 이미지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임을 강조한다.
- 모둠별 동영상을 발표함
 - 동영상을 정지해서 보충 설명을 함
 - 교사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도 그 부분에서 동영상을 정지하도록 함
 - 발표자와 동영상 조작 담당자가 분리되도록 한다.
- 다른 학생들은 맥락노트에 기록을 한다.
- 모둠 발표가 끝날 때 마다 질의 · 응답을 한다.

수업 주제		전쟁과 평화		일시	2003년 9월 4일 6교시		기록	1학년 3반 4모둠	
동영상 구성		1. 정전		2. 공포		3. 평화		이름	수행 평가 확인
		① 정전 협정	② 정전협 정의 보완	③ 핵공포	④ 북핵 위기	⑤ 평화의 조건	⑥ 반전평 화운동		
우리 모둠 활동	선택 동영상	핵심 지식				새롭게 깨달은 것			인상적 인장면
	핵위협								
(1) 모둠	정전 협정								

※ 모둠 발표 자료(5모둠 ‘평화의 조건’ 부분 발표 자료 예시)

회수	회수	장면	설명 내용
1	(2)분 (15)초	이라크전쟁 장면	이와 보시다시피 전쟁의 위험성이 이렇게 큰 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일어나선 안됩니다.
2	(3)분 (40)초	이라크 아이들의 모습	이렇게 전쟁의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보니 참 안타까움 마저 들고 저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3	(5)분 (50)초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자료 관장 증언	히로시마평화기념관 자료 관장의 얘기를 듣고 엄청난 이 히로시마의 피해를 보고 나니 전쟁은 일어나면 안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보조 자료	히로시마 피해자들의 사진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생긴 피해자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고난 뒤)이처럼 크나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느낀 점 : 우리가 전쟁이라 하면 스릴 있고 영화에서만 보던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줄만 알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의 필요성을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 맥락 노트에 나의 느낌과 각오를 적어서 발표한다.
- 교사가 보충설명을 한다.

나. 심화 및 수업 후 활동

- 모둠활동 결과물과 소감 또는 각오를 웹 자료실과 웹 게시판에 올린다.
- 모둠별 동영상을 하나로 이어서, 웹 자료실에 올린다.
- 다른 반 동영상과 비교해 보고, 그 느낌을 꼬리글로 올린다.

(8). 평가관점

- 편집된 동영상에 중요한 장면들을 담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편집된 동영상 발표를 위한 분석 및 발표 전략이 충실한가를 평가한다.
- 동영상 발표가 매끄럽게 잘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 맥락노트 기록을 충실하게 했는가를 평가한다.

(9). 지도상의 유의점

- 동영상 편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 계획에 따라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다.
- 동영상을 멈추는 순간의 장면을 정확히 기억해서 수업 발표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동영상을 전체 화면에서 재생하면 재생 시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동영상 발표 중간 중간에 보조 자료를 발표할 때는 동영상에서 보조 자료로, 보조 자료에서 동영상으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발표자와 동영상 조작자가 미리 연습을 하도록 지도한다.
- 즉 모듬별 발표자와 동영상 조작자가 발표 연습을 수차례 미리 해보도록 지도한다.
- 질의·응답은 동영상을 발표하는 순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한다. 의문 사항 뿐 아니라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느낌, 각오 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이미지에 사로잡혀 맥락을 잊어버리거나 왜곡하는 경우 다른 학생들의 지적이 없더라도 바로 그 순간 교사가 개입해서 시정해 준다.
- 질의·응답이 길어지면 적절하게 끊어서 다른 모듬 발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못한 질의·응답은 수업 후 탑재된 해당 자료를 찾아서 꼬리 글로 하도록 한다.

IV.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내실화¹¹⁾

1.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필요성

시범학교 운영은 그것이 어떤 종류든 간에 그 목적을 학생의 성장·발달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대개 실패한다. 시범학교의 성공은 발표회 당일 화려한 프리젠테이션이나 깔끔하게 가공된(?) 결과물이 아니라, 시범운영 기간동안

11) 심근석, 통일교육시범학교의 운영 내실화와 학교 통일교육의 적합성 모색, 광주교육연수원, 2005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에게 어떤 새로운 마음의 결이 자리 잡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내면적인 변화는 발표 당일 참관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그동안의 활동 산출물들을 점검해보면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범 학교 운영의 결과물을 정교화하면 일반화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을 것이다.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학생과 교사의 성장이 수반되는 통일교육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고, 통일교육의 가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보태게 될 것이다.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주무자와 주요 실무자의 마인드라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다. 먼저 통일교육 시범학교가 왜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차원의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학교 차원의 통합된 통일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주어진 기간동안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학습 자료의 효과 검증

찾아보면 통일교육의 프로그램과 자료는 다양하고 많다. 이들 중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성공적인 시범학교 운영의 결과물은 효과가 검증된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다. 통일교육 마인드 확산의 기회 제공

통일교육은 특정 교과에 한정될 수 없는 통합교과적 성격을 띤다. 실무자로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교과의 많은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통일관련 행사나 학습 모임에 가면 통일교육에 열정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막상 학교 안에서 찾기란 아직도 쉽지 않다. 본인들이 받아왔던 과거의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통일교육은 조심스럽고 부담스런 영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시범학교 실무자로 참여한 경험은 그런 선입견을 벗고 통일교육에 애정을 갖게 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 성공적인 시범 운영의 조건

모두에서 기술한 것처럼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의 성공은 발표회 당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시범 운영의 과정이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성공이나 하는 것에 운영 위원장이나 주무자가 올바른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많은 경우 “이런 시범학교 운영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학생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화된다거나, 행정적 편의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내용은 어디가고 없고 실적만 남는, 검증 설문 수치를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도 ‘보고회 당일 잘(?) 끝나면 성공이다’란 관념이 남아있는 한 시범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공적인 시범 운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보자.

가. 학생을 중심에 세우고 교육 활동의 과정에 충실하기

무엇보다 연구 주무자와 주요 실무자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변화하길 바라며, 운영의 결과 및 각종 산출물들이 유익한 일반화 자료가 되길 바라는 지향성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이러한 노력에 다 쓰여져야 한다. 교장, 교감선생님도 그런 노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나. 실무자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주무 부서에서는 모든 선생님들께 일일이 참여를 부탁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만 실무자로 선정하고, 그 분들에게는 구체적인 역할을 할당한다. 통일교육 경험이 생소한 실무자가 대부분이므로 그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린다. 예컨대 통일문답코너를 몇몇 분께 기간별로 나누어 맡기면서 통일문답자료를 드린다든지, 통일노래 율동을 맡은 선생님께는 이미 만들어진 율동 동영상 자료를 안내한다든지, 흡장승 만들기는 준비 작업을 함께 한다는지 하면 선행 경험이 별로 없더라도 잘 해낼 수가 있다.

다. 주제는 분명하게, 적용 활동 분야는 폭넓게

물론 시범운영의 주제는 초점이 있어야 한다. 주제에는 분명한 목표와 그 실현

수단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포항중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2003. 3. 1~2004. 2. 28)의 시범주제는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민족화해 및 평화통일 의지 함양’이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교과활동 뿐 아니라, 특별활동 등으로 확대되었다.

라. 학생활동의 결과물들은 시범학교 운영의 과정을 말해준다

실질적으로 한 학생 활동의 모든 결과물들은 잘 보관해 둔다. 수업의 결과물인 모둠노트든지, 특별활동의 결과물인 학생 작품이든지, 2차 가공할 필요 없이 발표회 당일 문서형태로,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보여 주면 된다. 그 결과물들을 이어보면 그동안 운영해 온 시범학교의 이력이 다 드러난다.

마. 웹 기반 학습(e러닝)의 존중

정보교류의 연동성과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CAI에서 ICT활용수업으로, e러닝으로 이것이 다시 u러닝(ubiquitous 러닝)으로 용어가 진화해 가고 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은 이제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다. e러닝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효과적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V. 학교 통일교육의 적합성으로 맺으며

1. 흥미하기

학교통일교육의 체계적 학습은 실사구시적 사실 습득과 바람직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가치관’이란 사실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에 개방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복지,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이 ‘자유’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사상을 존중하는 보편적 자유이며, ‘인권존중’은 북의 사회주의, 집단주의 체제 내에서 상층부 결정이 하달되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욕구와 의견이 상층부로 수렴, 반영되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면 북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관용의 ‘인권존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요소는 서로를 포함

하며 서로 종속적이라는 유엔인권협약의 보편적인 인권 개념에 유념하여야 한다. 북의 인권 주체는 북의 인민이다. 그들을 돕는 것이 북의 인권 개선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인권에 있어서 완전한 나라는 없다.

통일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 합의는 지금의 남남갈등이 감정적 대립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틀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 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 신념이나 정치적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지금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의 체계성에 적합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래도 「통일교육 지침서」는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합의의 산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통일교육 지침서의 큰 틀 속에서 교과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2006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교육지원법(99. 2. 5)과 시행령(99. 8. 6)에 의해 구성된 통일교육 심의 위원회에서 2000년 12월에 발간된 2001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시작되어 작년년부터 지침서는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게 ‘학교용’과 ‘일반용’으로 이원화하여 발간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용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학교 급별 교육과정별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필요가 있다.

3. 덧붙이는 말

통일교육지침서 수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활성화 되고, 통일교육 관련 교사들의 수평적 토론, 통일캠프, 교사 워크숍, 시범학교 활성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 교환 및 학교 통일교육 적합성 모색이 더 정교화 되었으면 좋겠다. N-세대로 불리기도 하는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고민도 필수적이다.

《 참고문헌 》

곽덕훈, “e-러닝의 발전을 위한 제언”, [KERIS], 2004 창간호 vol. 1), (서울 :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4) p.12.

심근석, “도덕과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각론 중학교 도덕)”,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심근석, “도덕과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각론 고등학교 도덕)”,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심근석, “ICT와 함께 하는 즐거운 도덕 수업(중등 도덕)”, 교육학술정보원, 2005년

심근석, “온라인 디지털 세계로의 통일교육 초대”, 통일교육소식 2005년10월호,
통일교육원

심근석, 통일교육시범학교의 운영 내실화와 학교 통일교육의 적합성 모색,
광주교육연수원, 2005

정용민 · 이종두 · 심근석 · 김병연, “영상으로 여는 통일 세상”, 즐거운학교, 2005년

조난심,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적합성검토」지침과
기준(도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년

{한국일보}. 2005년 4월 18일자.

Eva Kaplan-Leiserson, “E-learning Glossary”<http://www.learningcircuits.org/glossary.htm>.

http://shop.njoyschool.net/event/korea/korea_index.asp (즐거운학교 쇼핑물)

<http://user.chollian.net/~baweisol/> (바위솔의 통일교육마당)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글

죽변중학교 교사 류연하

I. 들어가는 말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통일을 했고, 일본은 분단도 되지 않고 단일국가로 온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데, 평화를 사랑하며 순박한 삶을 살아온 우리나라는 분단의 고통을 툭툭히 치르고 있다. 반만년에 빛나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분단과 대립의 역사가 반세기를 훌쩍 넘어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 ‘한번 상처가 평생 흉터 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올 것을 염려해야 할 정도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냉기류가 엄습해 있지만, 통일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한민족의 통일을 ‘예정된 통일(채정민, 2003)’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전망과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일은 한민족 최대의 과제이며 최대의 사회적 변화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통일이 되어 우리의 부러움을 샀던 독일은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겪고 있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간에 비교적 많은 인적·물적 교류를 함으로써 통일의 기초를 다졌었다. 하지만 갑자기 통일의 시점과 방식이 결정되는 바람에 국민의 지지속의 통일 준비와 정책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외르크 디터 코젤(2003)은 당시 언론이 평가한 통일 현실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당시만큼 독일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적이 없었고, 사람들은 독일 통일을 원하기는 하지만 서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44쪽)”라고 요약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후유증으로, 통일된 지 14년여가 되었지만 아직도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이해영, 2000)>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현실에 있다.

이러한 독일의 선례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

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우리는 통일 이전부터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적 지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통일을 대비하는 일관된 정책과 비전에 따라 올바른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현실성 있는 통일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II.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 내용

8.15이후 시작된 학교의 통일교육¹⁾은 국제상황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그 교육 명칭과 강조사항 등이 시대별로 바뀌어 왔다. 즉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통일 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대비교육, 민족 동질성 회복교육 등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 통일교육 내용 역시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서 변화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1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내용〉

교육과정	내 용	비 고
교수 요목의 시기 (1946~1954)	사회 기강의 해이와 퇴폐적인 풍조의 발생에 따라 학교에서의 도덕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반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체계적인 반공 교육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도덕 교육의 본격적 추진 (민주도의교육)
제1차 교육 과정 (1954~1963)	체계적인 도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의’가 준교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었고, 도덕과의 내용은 도의 교육과 함께 ‘반공·반일 교육’을 포함하였다.	1957년 ‘중학도의’ 발행 배포
제2차 교육 과정 (1963~1973)	교과 활동과 반공·도덕 생활 및 특별 활동 등 3대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p>제3차 교육 과정 (1973~1981)</p>	<p>반공·도덕 교육을 교과 활동에 포함시켜 그 명칭을 ‘도덕’으로 바꾸었으며, 처음으로 정식 교과가 된 ‘도덕’과 수업은 주당 2시간씩 배정하고, 지도 내용을 평가 및 고교 입시에서도 출제되었다. 종래에 ‘민주 생활’과 ‘승공 통일의 길’ 등 2권이던 교과서를 1979년에 다시 ‘도덕(상, 하)’로 합본하고, 1982년에는 상·하권을 다시 합철하여 현재와 같은 ‘도덕’ 교과서 체제가 확립되었다(중학 도의→중학 도덕→민주 생활, 승공 통일의 길→중학교 도덕).</p>	<p>정식 교과로 정착</p>
<p>제4차 교육 과정 (1981~1987)</p>	<p>1981년 12월에 고시된 제4차 중학교 교육 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은 1984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도덕 교과는 1982학년도부터 전 학년에 우선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덕과의 경우에는 1981년에 교육 과정의 개정과 동시에 교과서의 개편 작업이 병행하여 추진되었으며, 1982년에는 새 교육 과정에 따라 편찬된 새 교과서를 사용하였다.</p>	<p>영역 (1) 개인생활 (2) 사회생활 (3) 국가생활 (4) 반공생활</p>
<p>제5차 교육 과정 (1987~1992)</p>	<p>생활 영역의 재조정과 지도 내용의 상세화, 통일·안보 생활 영역의 설정과 내용 조정, 토의식 수업의 강조와 객관식 평가의 지양, 단원 구성상의 유의점 신설 등이다.</p>	<p>반공교육→통일·안보교육</p>
<p>제6차 교육 과정 (1992~1999)</p>	<p>특징 (1) 통일·안보영역의 축소→국가·민족생활로 통합 (2) 생활 예절 교육 강화 (3) 도덕과 교과 교육학으로서의 체계성 정립 (4) 생활환경의 확대 원리 (개인→가정, 이웃, 학교→사회→국가·민족) (5) 교육과정의 체계화(교육목표의 설정) - 도덕규범과 생활예절의 파악(1학년) - 도덕적 문제해결 능력 양성(2학년) - 지행합일의 지향(3학년) (5) 내용의 구성상 범위와 계열인 체계성을 중시 (6) 인물모형 제시</p>	<p>사회적 요구에 따라 모든 교과에서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도덕과에서는 결과를 통합하고 보완→도덕 교과의 위상과 역할 축소를 부추김</p>
<p>제7차 교육 과정 (1999~현재)</p>	<p>특징 (1)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과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교육의 목표로 함 (2)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내용의 대폭 반영</p>	<p>전 교과 관련 지도, 변화된 통일 환경에 부응하는 내용 반영</p>

이미식(2002), “일선학교 현장의 경험, 통일교육 실태와 과제”, 영남지역 통일교육담당교사 워크샵, PP9-10에서 재구성.

1) ‘통일 교육지원법(1999. 8. 6. 시행)’의 제2조에 의하면, 통일 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 및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다.

우리의 대북한 체제 역량이 강화되면서부터는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과 안보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대상임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는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공 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칭하는 등 통일교육의 방향이 바뀌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 환경은 질적으로 급변하였다. 즉,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와 변혁, 독일의 통일, 한·중 수교, 남북한 기본합의서 체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국내·국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통일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통일이후 민족공동체의 삶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게 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및 이에 따른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한 통일 교육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2000학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국내·국외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관 및 객관적인 북한관 정립을 통일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는 남북 화해,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2.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가. N세대의 변화와 문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적인 삶의 질과 사회 권력의 분배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식정보화라는 새로운 문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터넷 혁명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과 학교생활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이들 변화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과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존중받던 사람들(교수, 교사 등)에서 정보매체에 접근하는 능력과 새로운 정보가치를 만들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힘이 이동하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둘째는 청소년들은 공부 이외에 문화적 여가와 일을 즐기려 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친구와 연락을 하고 음악을 듣는 등 구세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학생 신분엔 맞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심지어는 원조교제까지 하는 극소수의 학생도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정보매체의 발달로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가 축소되어 가고 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한 타인 및 자연과 접촉할 기회보다는 정보매체를 통한 간접 체험으로 지식의 확대를 가져와서 감성 발달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N세대의 문화적인 특징은 모두와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고 그들 속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위세계를 무서워하며 자기의 세계에 틀어박히기를 좋아한다. 자기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며 살기를 좋아한다. 또한 경쟁을 회피하며 좋은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한없이 이상화하며 나쁘게 보이는 것은 철저히 깎아 내린다. 인간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기피하며 마음에 없는 명랑을 가장하여 따돌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쉽게 배반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두려워 발뺌한다.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좋아하여 흉내를 내어 적응해 나간다. 솔직하고 최고를 동경하며, 특별한 행동과 튀는 행동을 즐기고 남을 의식하여 모두에게 칭찬 받기를 원한다. 모두를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위협에 약하여 싫어지면 간단히 도망가 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 통일에 대한 인식

각종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절반이상은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으며 통일 이후의 사회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중·고교생의 57%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의 75%는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47~50%의 중·고교생이 통일사회를 비판한 것과는 반대로 대학생의 69%는 낙관적인 사회상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 후의 국가체제에 대해서도 중·고교생의 84%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한 반면 대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53%) 외에도 민주-공산주의 혼합 체제를 42%나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만길, 1996)

다. 통일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현행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교과서를 통한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주입식 통일교육은 학교교육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경직된 통일의식을 초래한다. 이러한 교육으로 합리적 인식과 비판능력이 미숙한 중·고교생의 경우 공산주의 혁명에 동조하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서구화된 사고방식과 물질적 풍요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민족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통일 문제 또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

3.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실태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토대로 학교통일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표2〉 실태조사 결과 (교사)

설문영역	설문내용	반응	실태
선생님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충분하다	0	통일교육에 대한 지식정도는 '약간 부족하다'가 55.5%로 낮은 편이다.
	충분하다	16.7	
	보통이다	27.8	
	약간 부족하다	55.5	
	절대 부족하다	0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 이후의 대비능력 고취	16.7	북한에 대한 이해가 통일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4.4%로 가장 높았다.
	분단현실에 대한 역사적 지식	27.8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교육	44.4	
	정부의 통일정책	11.1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55.6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관련교과의 정비 교사연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	38.9	
	그저 그렇다	5.6	
	아니다	0	
	전혀 아니다	0	

영양고등학교(2006), “다양한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한 통일 의지 함양”, 통일교육시범학교 보고서 내용.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통일문제에서 대체로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통일관련 연수와 연구를 통해 북한의 실상과 통일방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갈망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통일관련 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통일교육은 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서 마치 정치적 통일을 하면 통일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출발하고 있다.

둘째, 학교통일교육의 방법이 주로 교사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 및 기법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직접 개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권한과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가 제약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통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통일교육이 학교급별, 학년별에 따른 체계성이 떨어지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내용의 중복에 따른 지루함이 많았다.

넷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교사 변인의 중요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직전교육이나 재직 후 교육 과정이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섯째, 기존의 학교통일교육은 관련 연구 기관이나 언론, 기업 등과의 연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통일교육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의 유기적인 공유와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작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통일 문제는 특히 시의 적절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언론이나 다양한 통일 관련 기관에서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입시에 의해 좌

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입시에는 통일에 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학교통일교육 단원이 연중 교사가 가장 바쁜 시기인 학년말에 주로 다루도록 되어 있어 깊이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 수업이 된다.

III. 학교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1. 패러다임의 변화

가. 통합적 통일교육 과정안 확립

현재의 7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통일관련 교육의 목표는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과 올바른 통일 의식 함양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내용을 대폭 반영하고 전 교과 관련 지도와 변화된 통일 환경에 부응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도덕과 통일교육 단원은 ‘국가, 민족, 민족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자세를 지니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과제를 파악하여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하며, 통일 이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한국인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정신과 이념을 그 교육목표로 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어 교과의 특성과 관련 있는 통일교육 요소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체험놀이 중심, 학생중심 학습의 도입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효과를 내면화하는 의미에서 ‘학교 통일 한마당 개최하기, 학생 통일 동아리 만들기, 북한 동포 돕기 성금 모으기, 등의 실천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수업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음악교육을 통하여 북한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남북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단일화할 수 있다. 또한 체육시간에는 남북한 주민이 동시에 즐기고 있는 씨름이나,

민속놀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미술과를 통해서도 전통문양, 한국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한 미술작품의 감상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지역교육 차원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체험센터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험학습을 통한 체계화된 통일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심연수(2005), "학교통일교육의 체계성 확립 및 방향에 관한 연구-통일대비 통합 통일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에서 인용)

2. 내용과 방법의 문제

가. 내용: 남북한 바로알기 지도

관련되는 모든 교과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과 특성,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 의식과 가치관, 생활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예·체능 교과에서도 교과특성에 적합한 통일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의 경우에는 북한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나 북한 음악 가운데 전통 음악, 미술에서는 북한의 미술품에 대한 설명이나 감상, 과학의 경우에도 북한에서 배우는 과학의 내용들과 북한의 과학수준 등에 대한 설명, 체육에서는 전통 민속, 집단체조 등을 들 수 있다. 도덕과의 통일교육 내용을 보면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체계적이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통일교육 내용의 비중이 적은 학년도 있으며, 통일 관련 내용이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도덕·윤리과에서 북한 사회와 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북한 사회와 주민에 관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북한 관련 시사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통일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이 수집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문, 잡지, 방송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북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방문자들이 가져오는 영상자료도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자료 전시회를 지역별로, 학교별로, 수시로 개최하여 학생들이 북한 자료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방법

우리의 학교 통일교육은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 이를 촉진시키며 통일 이후의 민족 통합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국가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열망하고, 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에 따른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및 이질성 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 인터넷(internet)

인터넷이란 컴퓨터의 터미널과 전송선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에 그물망처럼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체제이다. 이것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 검색 이용법
- 전자 우편 이용법
- 전자 게시판 이용법
- 정보 사냥 대회 이용법

(2) 컴퓨터 시뮬레이션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우리가 실제로 세계의 어떤 현상들을 직접 체험할 수 없지만 그 현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수한 행동들을 모의 상황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개념과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

션은 교육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한 실제 상황의 모델과 이론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조작하여 특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모방이나 재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실세계의 여러 측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력한 교수 기법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동기 유발이 가능하며 실제 상황에 대한 반응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 북한의 가정생활 체험 등
- 통일로 가는 길

3. 통일교육 방법의 다양화 모색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실현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해외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의 접촉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특히 중국에는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많은 조선족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서서히 중국인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젊은 청장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주 2세들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은 받아보지 못했으며, 대도시로 이주하였거나 관리로 진출한 사람들은 한국말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소외된 일부는 언어와 문화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막연한 향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IV. 맺는 말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해 나갈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초당파적 차원에서 범국민적 토론을 통하여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통일관은 세대, 계층,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통일관의 차이는 통일교육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 사이에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일관된 통일관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하여 국민들의 시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교육의 일관된 관점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명제를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합의된 통합적 통일교육 과정안 확립이 필요하다. 각 교과별로 통일교육 요소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통일교육 과정안을 마련하여 일치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N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세계화시대에 맞게 해외동포들을 끌어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실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학교통일교육의 확립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다. 그러므로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민족통합을 이루고 통일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들에게 주어진 민족사적 소명이다. 합의된 학교통일교육을 마련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행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심연수(2005), “학교통일교육의 체계성 확립 및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 통합통일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종한 외 2명(2004),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통일교육원.

차우규(1999), “학교교육의 효율적 지도방안”, 제1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청소년신문

(창간호. 2001. 1), <http://www.evergreenclass.com/old/sin-dn/sin-bak/bak-160.htm>.

한만길(1996), http://life.edunet4u.net/apply/weeknews/961113/961113_08_04.htm.

영양고등학교(2006), “다양한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한 통일 의지 함양”, 통일교육시범학교보고서.

2006년도 제7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쇄일 2006년 12월 7일
- 발행일 2006년 12월 8일
-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142-715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 7160~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 디자인/인쇄 맥향커뮤니케이션 전화 02-2272-7890

<비매품>